

전남도,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청신호'

'지능형 플랫폼' 산업부 공모 선정 148억원 투입 헬스케어 기반 조성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신정훈, 산업부에 화순 지정 요청

전남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디지털 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근 차세대 펩타이드 첨단신약

플랫폼 구축 사업(440억원), 혁신신약소재물질 사업화비임상 핵심실증 지원사업(73억원)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발표가 임박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48억원이다. 전남도와 화순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2028년까지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등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소재 검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주관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순 헬스케어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충남

대학교병원, (사)분자설계연구소가 참여해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대상 맞춤형 전주기 기업 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 소재의 안전성 및 유효성 예측 플랫폼 개발 △디지털 병리 고속 판독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오가노이드 첨단대체시험법 구축 △인공지능 기반 전주기 지원 통합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다. 병리란 질병의 원인, 발생, 경과 등에 관한 이론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3D프린터 등으로 폐, 간, 뇌 등 인간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구현하도록 만든 인공장

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잇따른 첨단바이오 관련 공모사업 유치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전남의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을 국회에서 만나 화순이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화순은 국가가 인정한 15개 국가·공공기관이 집적한 백신·면역치료

특화지역으로 지난 20년간 1조2000억원의 국·도비 등이 투자된 국내 유일의 보스턴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14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나,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화순에 바이오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강 1차관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미래경쟁력 차원에서 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옥·곽지혜기자

광주 영화·드라마 촬영지 관광명소화 추진

광주관광공사-정보진흥원 협약

광주관광공사가 영상산업 관광자원화에 나선다.

23일 광주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관광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의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제공과 로케이션 제작 지원 △그 밖에 광주 관광산업과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서울의 봄, 넷플릭스의 이두나! 등이 흥행하면서 광주가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서 주목받고 있고, 실감콘텐츠큐브 등 스튜디오 촬영에 적합한 최고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광주의 특색을 담은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신나는 체육대회

광주대 학생들이 23일 교내 운동장에서 열린 호심체전에서 에어봉 릴레이 경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전국에 알린다

전남도는 친환경·유기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에 관한 홍보와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제23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 지역 8개 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하는 제23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1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전국각지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건강식품 및 유기농자재, 친환경가공품 등이 전시되며 전국 친환경 업체, 단

체, 기관이 참가한다. 또한 올해는 부산국제식품대전, 휴테이블데코페어, 부산커피쇼와 동시에 개최돼 총 400개사, 800부스 규모의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전남 8개 업체는 순천 쌍지틀전통식품과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 고흥 친환경농업협회, 보성 우리원, 화순 오곡발효마을, 강진 다산정미영농조합법인, 해남땅갈래돈인과땅갈래유기농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곽지혜 기자

전남도, 우즈벡 에너지위크서 100만 달러 수출계약

전남도는 지역 에너지기업 7개사와 함께 지난 16일까지 4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4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위크'에 참가해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에너지위크 참여는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분야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KOTRA)광주전남지원단과 코트라(KOTRA)타슈켄트무역관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전남도관은 현지 바이어와 관람객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7개 참여 기업은 태양광 기술, 고도화된 에너지 솔루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에너지위크에선 금철이노베이션이 태양열 집열기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유엔테크노는 고압케이블을, 가나이엔지는 태양광 가로등을 출품해 우즈베키스탄 주요 바이어와

의미 있는 수출 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참여 기업들은 에너지위크 참석에 앞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다양한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하기 위한 현지 수출상담회도 개최했다.

수출상담회에서 경향산업은 단열재를, 디엔티는 신축이음관을, 아이티맨은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유에너지는 폴더 개폐식 태양광 발전기를 출품해 전남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51개 사 현지 바이어와 12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에너지위크 참가로 전남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전남 에너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포용도시' 광주서 '세계인의 날' 열린다

25일 시청서 17회 기념식 개최 세계 문화·음식 체험 등 마련

'포용도시 광주'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교감하는 '세계인의 날' 축제가 열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5일 시청 대회의실과 시의회 앞 광장에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세계인의 날' (5월20일)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심철의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내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에는 (사)광주국제교류센터(대표 신경우)가 내외국인 소통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또 장미영(광주남구가족센터), 박미향(광주서구가족센터), 다비드 씨(독일-전남대학교 유학생) 등 6명의 시민과 기관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패)을 받는다.

기념식 이후에는 필리핀과 우크라이나 전통음악 등 세계음악이 펼쳐진다.

대회의실 앞에서는 '다문화 시화전'이

열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예술을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현장에서는 김정우 작가(만초아스튜디오)가 직접 시민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광주시의회 1층에서는 29동의 세계문화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캐나다-에티오피아-필리핀-루마니아 등 10개국 외국인 주민이 운영하는 △세계 문화 체험 △세계음식맛보기 △세계의상 입고 인생네컷 등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가 제공된다. 광주문화재단은 △협오·차별 없는 다가치 세상 △세계민속놀이 △인디영화 등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부스를 운영한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추진

265개 사업 505명 선발

광주시가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505명을 모집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공공근로 89개 사업 126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76개 사업 379명 등 총 265개 사업에 505명을 선발·배치한

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광주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 임금은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임금),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에서는 참여자 선발기준 평가표에 의거해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를 최종 선발해 6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